

서평

노마 히데키(野間 秀樹) 편저

《한국어교육론강좌 제 1 권》

구로시오출판 2007년 4월

쓰지 세이지 (辻星児) 오카야마(岡山)대학 대학원 교수
번역: 김남은 (金南昕) 동경외국어대학 대학원 박사전기과정

본고의 필자는 70년대부터 지금까지 미흡하지만 한국어와 관계를 맺고 있는데, 70년대 이후의 한국어학습은 눈부신 성장을 이룩했다. (필자가 근무하는 대학에서도 교양교육의 한국어 이수자는 현재 500 명을 넘었고, 프랑스어를 족히 앞지르고 있다) 동시에 일본에서의 최근 한국어연구, 특히 공시적 연구의 심화와 확대는 말할 것도 없다. 이 《강좌》는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짜여진 것으로, 완결 때는 전 4 권이 될 것이라고 한다. 문자 그대로 획기적인 저작이다.

《교육론 강좌》라고 이름을 내걸고 있으나 한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한국어학의 종합적 강좌, 총서이기도 하며, 게다가 문화교육론도 시야에 넣어 연구로의 입문을 돕는 것을 꾀하고 있다.(서문) 이번에 여기에서 소개를 하는 것은 제 1 권으로 총론, 교육사, 방언, 음론, 표기론, 어휘론, 사전론, 조어론 등의 분야를 포함하는 727 페이지의 대저서이다.

편저자인 노마 히데키(野間 秀樹)(동경외국어대학 대학원 교수)씨는 더 이상 말할 나위가 없으나 현재 한국어학, 한국어 교육을 선도하는 우수하고, 뛰어난 연구자이자 교육자이다. 그야말로 시의적절한 편저자라 해야 할 것이다. 집필자는 제 1 권만으로도 20 명, 전 권을 훑어 보면 65 명을 넘고, 또한 (필자의 차세대인) 젊은 연구자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 이 정도로 젊은 세대 연구자가 성장하고, 활약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앞으로의 일본에서의 한국어학, 한국어 교육에 밝은 전망을 기대할 수 있다.

제 1 권을 통독하여 보면 많은 논고에서 편저자의 사려 깊은 배려를 느낄 수 있다. 그리고 그 어떤 논고도 기술언어학이라는 입장에 의거하고 있으며, 확실한 언어사실과 명확한 용어에 기거하여 기본을 파악하려고 하는 태도를 볼 수 있다. 또한 한국어(학)의 테두리에서 다룰 수 없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다는 점 등, 전체적으로 안심하고 읽어나갈 수 있는 저서이다. 특히 많은 논고에서 일본어와의 대조적 관점을 도입한 것도 이 《강좌》의 뛰어난 특징이라 하겠다. 필자도 본서를 읽고, 이 대조적 관점에서 배운 부분이 많아 유익했다. 그리고 한자 표기된 고유명사에 음을 단 것과 년대 표기, 각주 등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호감을 가질 수 있다.

이 《강좌》의 독자는 한국어교육·어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등, 넓은 범위의 사람들을 상정하고 있다.(《서문》).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넓은 시점에서 서 있는 본서의

내용은 다양한 독자를 만족시켜 줄 것이다. 또한 각 레벨(음성학, 음운론, 형태음운론 등)의 개설도 갖추어져 있어 한국언어학을 체계적으로 배우려는 사람들을 위한 도입의 역할을 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아 균형이 잡혀 있고,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은 좋은 입문 겸 전문서라 말할 수 있겠다. 단, 집필자에 따른 전문용어의 차이(예를 들면 관형격과 속격 등)가 있어서 그 설명이나 조정이 필요한 곳도 있다. 또 논고 간의 상호참조의 주기(기술의 중복도 포함하여)도 전체적으로 덧붙였으면 좋았을 것 같고, 더욱심을 부리자면 권 말에 간단한 용어 해설(glossary)을 넣어줄 수 있었다면 입문 학습자에게는 편리했을 것 같다.

이제 순서에 따라 본서의 내용을 소개 해 갈 터이나 제 1 권만으로도 29 편의 논고를 수록하고 있어 모든 것에 대한 코멘트를 다는 것을 삼가려 한다.

《시론: 언어를 배우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노마 히데키(野間 秀樹)

첫머리에 쓰여진 편저자의 총론이다. 근대 일본에 있어서의 한국어 교육·연구의 역사를 시작으로 하여 <쓰여진 언어>에 숨겨져 있는 <번역>이라는 행위, <말해진 언어>와 <쓰여진 언어>와의 근본적인 차이, 언어를 인간의 근원적인 존재로써 파악하려는 시점 등 독창적인 논고가 전개되어 있다. 언어연구·교육이 걸핏하면 과도하게 형식화 또는 기술화되어 인간의 본질이나 마음으로부터 떨어져 가고 있는 지금, 이 《시론》과 같이 언어를 사용하는 영위의 근원성에 대한 사고를 갖는 것은 <말>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상의 총론 뒤에는 한국어 교육의 현재와 그 역사에 관한 논고 네 편이 이어진다.

《일본에 있어서 한국어 교육의 현재》 오구리 아키라(小栗 章)

《일본에 있어서 한국어 교육의 역사》

노마 히데키(野間 秀樹) · 나카지마 히토시(中島 仁)

《한국에 있어서 한국어 교육의 현재》 민현식(閔賢植)

《국제 한국어교육학회의 현재》 조항록(趙恒錄)

각각 자세한 데이터나 수치에 따른 한국어교육(학습자 수, 기관 수 등)의 추이와 현황을 알 수 있어 유익하다. 필자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1970 년경과는 격세지감을 느끼게 된다. (70 년경에 한국어 수업이 있었던 대학은 전국에서 몇 개 학교 혹은 10 개 학교에도 미치지 못했으나 (본서에 의하면) 2003 년도에는 335 개 학교에 이른다고 한다). 그리고 본 논고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전전의 동경 제국 대학이나 교토 제국 대학에서는 언어학 강좌에서 한국어 수업이 있었다.

뒤이어 다음의 두 편은 교사가 한국어모어화자인지, 일본어모어화자인지에 따른 교수법의 차이를 다루고 있다.

《한국어 모어화자에 의한 한국어교육》 유타니 유키토시(油谷 幸利)

《일본어 모어 화자가 한국어를 가르치기 위하여》 하세가와 유키코(長谷川 由起子)

한국어모어화자, 일본어모어화자 그 어느 쪽도 장점과 약점이 있다는 것은 각자 명심해야 할 것이다. 위의 두 논고는 이러한 요점이 제대로 정리되어 있다. 또한 중급 이상의 작문 수업 등에서는 동일한 수업을 한국어 모어화자 교사와 일본어 모어화자 교사인 두 사람이 협력하면서 진행하는 것도 효과적인 것이다.

교사의 문제와 함께 한국어 그 자체의 변이도 중요하다. 다음의 세 편은 지역적인 방언 문제를 다루고 있다.

- 《한국과 북한의 언어차》 정희원(鄭稀元)
- 《방언의 문법적 분화》 고동호(高東昊)
- 《경상도 방언과 서울 방언》 조의성(趙義成)

남북간의 어휘 차이, 방언간의 차이가 간결하게 정리되어 있어 유익하다. 단 경상도 방언 이외의 음성음운에 대한 개설도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이어지는 다섯 편은 한국어의 구조를 레벨별로 해설한 논고이다.

- 《음성학으로부터의 접근》 노마 히데키(野間 秀樹)
- 《음운론으로부터의 접근》 노마 히데키(野間 秀樹)
- 《형태음운론으로부터의 접근》 노마 히데키(野間 秀樹)
- 《음향음성학으로부터의 접근》 우쓰기 아키라(宇都木 昭)
- 《한국어 운율론》 김종덕(金鍾德)

한국어의 음성, 음소, 음소교체, 운율 등에 대해서 체계적인 기술이 시도되어 있다. 동시에 언어분석과 그 방법에 대한 입문도 겸하고 있어서 (음향)음성학, 언어학 방법론도 습득할 수 있다. 특히 음소, 변이음, 형태소, 음소교체라는 기본적 개념이 한국어의 예를 들어 세심하게 설명하고 있다.

언어학에 문외한인 독자에게도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일본어와의 대조도 언급하고 있고, 연구의 새로운 식견도 충분히 받아들이고 있다.

음성·음운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표기론의 논고로써는 다음의 네 편이 계속된다.

- 《문자와 발음의 지도법》 조의성(趙義成)
- 《한국어의 로마자표기법》 김진아(金珍娥)
- 《한글정서법과 표준어》 정희창(鄭熙昌)
- 《외래어표기법에 대하여》 나카지마 히토시(中島 仁)

문자·발음을 효과적으로 지도, 학습하기 위한 유의점, 여러 가지 로마표기법의 변천과 그 비교, 현재의 정서법의 원칙, 외래어표기법의 변천과 실태 등이 간결하고 적절하게 기술되어 있다. 게다가 많은 부분이 일본어와 관련하여 논하고 있고, 또한 일본어 모어화자를 위한 효과적인 지도법의 제언이 담겨져 있는 등 지도자·학습자에게 있어 큰

도움이 된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다섯 편은 어휘론과 중요한 품사를 다룬 논고이다.

《기초학습어휘론: 일본어 화자를 위하여》 서상규(徐尙揆)

《동사에 대하여》 노마 히데키(野間 秀樹)

《형용사에 대하여》 나카니시 교코(中西 恭子)

《명사에 대하여》 이토 히데토(伊藤 英人)

《불완전 명사에 대하여》 조의성(趙義成)

외국어학습에 있어서 기본어휘의 선택과 제시는 상당히 중요하다.

앞에서 기술한 첫 번째 논고에서는 지금까지의 기본어휘연구의 성과와 특성을 개관하고, 선정방법을 검토하고 있다.(이《강좌》어딘가에 시안으로써의 기본 21,000어를 제시할 수는 없는 것일까). 한국어의 품사론에 대해서는 이《강좌》의 다른 권에서 논하여 질 듯 하다. 본서에서는 주요한 품사인 동사, 형용사, 명사(수사 포함) 또는 불완전 명사(소위 의존명사, 형식명사)에 대하여 그 형태, 문법적 특징, 분류, 단어결합, 일본어와의 대조 등이 구체적으로 논하여져 있어 각기 품사의 성질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일본어와의 대조에서는 일본어학에도 기여할 흥미 깊은 지적이 많다.

기초를 끝낸 외국어 학습에 있어서 어휘력의 향상은 중심적인 과제이다. 그를 위해서는(앞의 논고에도 언급하고 있는 것과 같이) 원어의 소설 등을 통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어휘력을 키우고, 말의 실제 (살아있는)사용되는 방법(콜로케이션을 포함하여)을 배울 뿐만 아니라 민족의 마음이나 문화에도 접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명사에 대하여》에서는 독해능력의 향상을 위해서는 한국 한자음의 철저한 학습이 필요하다고 논하고 있으며, 같은 집필자에 의하여 한 가지 방안이 다음의 장을 빌어 다시한번 알려주고 있다.

《한자음 교육법》 이토 히데토(伊藤 英人)

한국 한자음을 일본어 읽는 법으로 변환하는 <고치기 규칙>을 보여주고 있다. 여러 가지 문제는 있으나, 흥미있는 시도이다. 언어사로의 흥미를 피하여 일본어의 이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어휘에 관한 문제로서 콜로케이션 문제가 다음으로 다루어 지고 있다.

《한국어교육에 있어서의 콜로케이션 정보 활용》 남윤진(南潤珍)

콜로케이션(언어관계:단어와 단어의 공기경향)은 의미론과도 관련된 중요한 개념이며, 한국어 교육에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분야이다. 더 깊은 연구가 기다려진다. 사전의 기술에 콜로케이션 정보를 담는 것도 앞으로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두 편은 사전과 관련한 논고이다.

《한국어 사전에서의 가타카나 표기》 구마타니 아키야스(熊谷 明泰)

《동형이어(同形異語)에 대하여》 유타니 유키토시(油谷 幸利)

첫 번째 논고는 기존의 네 가지 사전에서 보여지는 가타카나 발음 표기의 현황을 분석하고 고찰을 보탠 것이다. 아이누어의 가나표기법은 이미 정착되어 있으니 이것 또한 참고하면 어떨까. 그 뒤의 논고는 집필자가 구축한 한국어 web 사전의 소개이다. 이 web 사전에 예를 들면 "가시다"를 입력하면 곧바로 6 가지의 분석(異語)이 나타난다. 표제어 수는 2008 년 1 월 현재 3700 항목을 넘었고, 본서 집필 때보다 늘어나 5 배 가까운 수치가 되었다. 본고의 필자도 시도해 보았는데, 교육에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사전이다.

마지막으로 단어 조성론의 관점에서 쓰여진 논고가 있다.

《조어론으로부터의 접근》 기타무라 다다시(北村 唯司)

한국어의 명사, 동사, 형용사에 대하여, 파생과 합성(복합)의 각 방법을 논한 것이다. 조어유형의 각각의 개요를 알 수 있어 유용하다. 좀더 욕심을 부리자면 각 접사의 의미에 대한 언급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이상으로 제 1 권의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표면적인 소개가 되어버린 것에 양해를 구한다. 다음 제 2 권 이후에는 다음과 같은 구성(예정)으로 다루어질 것이다.

제 2 권: 문법론, 담화론, 언어행동론, 표현론, 사회언어학, 언어장론

제 3 권: 대조언어학, 유형론, 언어사, 교수법, 교재론, 교재기초론, 실러버스론, 평가론

제 4 권: 문화론, 문학·영화·만화·미디어·음식론, 역사학, 번역론, 언어존재론,

문헌 안내 (2008 년 1 월간)

한국어 교육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그 기반이 되는 연구를 다방면으로 깊이 다룰 필요가 있다는 것은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 이 《강좌》는 그를 위한 확실한 기초를 제공할 것이다. 전권의 완결을 기다리는 바이다.